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2월 12일 (제1188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진정한 용기

작년 말, 나는 단에서 성도들에게 사죄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설교하면서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불효자들에게 ‘이놈 ~~~~, 개보다 못한 년놈들’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성도가 이 말에 시험이 잔뜩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단에서 “죄송합니다. 내 말에 시험이 들었다면 나를 용서해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누군가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단에서 용서를 빌어야 하느냐고, 그것도 고개까지 숙여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뱃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눅17:2)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나로 인해 실족하는 자가 있었다면 무릎인들 못 꿇겠는가.

나는 일본교회의 주의 종이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나를 봐서 용서해주십시오.’라며 건물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도 있다. 목회 초 어느 목사님이 주신 응답을 소주에 타서 먹는 것이 탄로가 나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단에서 ‘미안합니다.’라고 사죄한 적도 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목사는 실수 안 하는가? 목사는 신이 아니다.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자는 그 잘못을 성도 앞에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 절대 핑계나 변명하지 않는다. 변명은 살아남기 위한 조잡한 수단이니까.

아담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 잘못을 지적 받았을 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 죄 사함을 받았지 않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러나 요즘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과하는 것에 인색하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용기인 줄 안다.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약자의 언어가 아니다. 사과(謝過)는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의 언어임을 깨닫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전4:20).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인생사 범사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말로는 온 인류를 배불리 먹일 수 있지만, 실제로 지역의 빈곤한 이웃들에게 빵과 옷가지를 나눠주려 해도 그만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실행력이 그 사람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의 신뢰 이미지를 공고히 한다.

목사님을 따라 해외집회에 나가 현지의

수를 전하고 자랑하기 위한 목회자의 삶을 강조하시고 함께 힘을 합해 남미를 복음화하시고 독려하셨다. 이러한 장면들은 거의 매 집회 때마다 재현되곤 했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이러한 열정과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보았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에 자신감을 갖는 분을 보지 못했다. 세상 그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에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분이다. 그 옛날 생사여탈권을 가졌던 사도들의 모습 그대로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있었던 것도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자와 꿈을 상대로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감을 갖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키л 때에 사자나 꿈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꿈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

매사 자신감을 가지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봉우 이초석 목사

자신감은 경험을 통해 얻은 자산이다

목회자, 정치인, 사업가들을 만나면 꼭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 집회 전에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목사 정도로 여기는지 딱 보기도 의례적인 환영 인사를 한다. 그러다가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벌써 눈에서 존경심이 뿜뿜 떨어지는 표정으로 극진한 대접을 한다. 목사님을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라.

처음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그 나라 최대 교회의 목회자라는 카니발, 프레이손 목사가 우리 숙소를 찾아온 적이 있다. 교인이 만 명, 2만 명 된다는 교회의 담임목사들이었다. 그러나 대화의 과정을 직접 목격한 바로는 완전히 목사님께 압도되고 있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

폴면 하늘에서도 풀리며, 방문한 곳에서 복음이 배척받았을 때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보다 더한 보응의 역사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경험으로 체득한 분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나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마10:14~15).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100%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지셨기에 어디를 가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담대할 수

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삼상17:34~37).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다. 문제를 친구 삼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믿음이 확실한 자신감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경험이 매사 자신감 있는 굳건한 신앙의 초석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배타적인 생각을 버리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9:17~29)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이 말씀은 수용과 배척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수용(受容)은 받아들이는 것이요, 배척(排斥)은 싫어서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위 말씀을 보자면 ‘세상’과 ‘나’(예수를 믿는 자)는 배타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배척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찌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찌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잠1:24~25).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사30:9). 하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나 하고 예수 배척한지라”(막6:3).

물과 기름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예수를 배척한 결과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잠1:26~30).

반대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왜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약4:4).

세상을 배척해야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자랑하던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빌3:8). 그래야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후1:20). 그런 그가 받을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

후4:8).

저는 자주 목회 38년을 뒤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 먼저 세상이 저를 배척합니다. 가장 사랑하던 가족들, 친구들이 저를 버립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배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된 후, 교단에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교단에서 제명된 후에 교회에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치를 할 정도로 되레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100% 믿



총회장 이초석 목사

고 수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믿어라.”고 말할 정도

로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묻지도 않고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는 말씀을 완전히 믿고, 레마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나?”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일까요? No!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런 배척, 배타적 생각은 고착된 사고의 틀에서 비롯됩니다. 사고가 옛것에 답답하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해가 왜 찢고 있나요?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인식도 갇혀 있으면 찢습니다. 알량한 지식이란 틀, 쥐꼬리만 한 경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그 잣대로 재고 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9:23)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은 기름이 물을 배척하듯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겸손을 가장한 배타적인 생각으로, 겉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배척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23:27).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

도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도 왕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능력은 대단하건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가능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못 살고, 아프고, 능력도 없어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하심이 가난해서 빌어먹으라는 걸까요? 아파서 늘 빌빌거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어서 주며 살되 섬김의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야 할 권리도, 애틍 권리도, 망할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 밤에 그 반찬으로 사는 것은 고정관념, 잘못된 인식이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리된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지요(눅6:39).

성경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역시 100% 믿습니

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하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안 되느냐? 첫째는 ‘이게 뭘까?’ 부정의 생각 때문이요, 둘째는 아직 기도의 독이 안 차서요, 셋째는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온전하게 수용하고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주신 복의 주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 즉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전2:9).

여러분, 내 안을 잘 살펴보세요. 내 안에는 상극인 두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늘 으르릉거리며 상대를 잡아먹으려고 난립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사도 바울도 속에서 싸우는 두 놈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롬7:23).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두 놈 중 누가 이길까요? 당신이 어느 것에 더 먹이를 많이 주느냐, 어느 것을 배척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정’이란 동물에 관심을 갖고 먹이를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긍정’이란 동물은 힘을 잃어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당신이 ‘미래’라는 동물을 굶기고 배척하며 ‘과거’라는 동물을 먹여 살찌우면 당신의 삶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 발전과 성장이 없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병을 떠받치고 사는데 병이 떠나겠냐고요. 가난을 떠받치고 있는데 가난이 떠나겠냐고요. 부정과 과거, 그리고 병과 가난은 배척해야 할 대상이지 품에 품고 먹이를 줄 대상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습니까? 가난과 병을 배척하세요.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행복과 축복, 건강을 수용하세요.

지금 나는 어떤 것을 배척하고, 어떤 것을 수용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성패는 물론이요, 영생과 영멸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90세 이상 장수했고, 70세 이후에 남긴 작품이나 저서가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타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가 젊은이이고, 열정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리 젊더라도 애 늙은이입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올라가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목숨을 걸고 주일에 두 번씩이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4부예배 때는 은사집회로 축사를 통해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4부예배를 채우시고 다시 해외집회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매달리시는데 우리가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을 품고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합동작전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

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 일이 곧 나의 일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열심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잡다한 일에 빠앗겼던 관심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거리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뜨거운 열정이 생겨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의욕이 상실되어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면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세지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목사님을 부르시고 예수중심교단을 세우셨습니다.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동참하여 아름다운 명작을 남기고 천국에 갔으면 합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예술작품입니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기에 더욱 명작을 남기고 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명작은 열정의 산물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탓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질주해봅시다. 반드시 멋진 인생작이 나올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 성경에세이 ::

인과응보(因果應報)

여보게!
자네는 인과응보의 뜻을 알고 있나?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들린다는 뜻이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뜻을 풀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라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는 말씀이지.

나는 요즘 성경의 말씀이 대부분 인과응보로 이뤄졌음을 깨달았네. 원인대로 결과가 풀린다는 것을.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6:37). 이 말씀을 잘 보게. 비판하면 비판받고, 비판 안하면 비판 안 받는다는 것이니 인과응보 맞지 않은가.

또 볼까? “내가 부를찌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찌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잠1:24~26). 왜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러실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

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잠1:29~30).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은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잠1:31).

결국 인과응보란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는 말이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말이라네. 그러므로 삶 전반에 좋은 것을 뿌리고, 선을 추구하고, 옳은 길로 가야 그 결과가 좋다는 말이지. 까닭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여보게!
자네는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그것이 좋은 것이면 자네가 좋은 것을 뿌렸다는 것이고, 자네가 지금 거두는 것이 아프고 쓰리고 힘든 것이라면 그 씨를 뿌렸다는 것이네. 누굴 탓할 수도 없지. 그러니 이제라도 과정에 신중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반듯하세. 그래야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과가 나올 테니.

朋友

뮤지컬 ‘스크루테이프의 경고’

지난 4일,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에서는 ‘스크루테이프의 경고’라는 작품이 드라마예배로 드러졌다. 이 작품은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각색한 것으로 예수중심교단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전쟁에 관한 경각심을 주었다.

내용은 이렇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지옥부의 성공한 악마 차관이 부하 3명과 함께 크리스천들을 ‘예수와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나 쉽게 당하는 마귀의 유혹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악의 영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꼼꼼하게 움직이는데 때로는 운세나 타로카드 등 점보는 것을 좋아하는 MZ세대들을 파고들기도 하고, 음식이나 맛집에 빠진 사람들을 탐식으로 현혹시키고,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단절시킨다. 여기에 더하여 성경 인물 읊처럼 병

을 얻게 하며 육체와 함께 영적 자아를 나약하게 만든다. 이런 삶의 한 단편을 공연으로 본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2023년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표어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자’이다. 우리는 지금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매사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필승법을 알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8~9).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영권으로 ‘스크루테이프의 경고’의 주인공들처럼 매사 승리하는 예수중심교인들이 되어보자. 할렐루야! **송현혜**



:: 생명의 말씀 ::

올해를 기대한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글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때로 나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닦아내 겹으로 쓰려고 자녀들을 사람들에게서 떨어트려 한동안 숨긴다. 고독의 장소는 너를 정화시키는 장소이다. 나는 네가 나의 활에 걸린 화살처럼 강력한 무기로 성장하여 사람들 영혼과 마음의 어두운 곳들을 능히 꿰뚫을 때까지 그 고독의 장소에서 다듬고 단련할 작정이다. 이 훈련이 끝나면 네 말은 내가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는 나의 말이 될 것이다.”

이 말과 같은 내용이 성경에도 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사49:2).

이 얼마나 감사한가. 올해에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나를 연단하시고 크신 복을 받을 그릇을 빚고 계시는 과정이라니 너무 감사하다. 다윗과 요셉을 크게 연단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하시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한다.

힘들었던 시절 혼자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를 큰 인물로 만들지 마시고 이 연단을 그쳐주십시오. 제발요.”

하지만 주님의 연단은 참으로 길었다. 13년이라는 연단의 세월이었지만, 참으로 평안과 안식의 시간이기도 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연단을, 아담에게 20년, 요셉에게는 13년 세월을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떤 세월을 사셨는가. 그분들에게 주신 연단이 내게 있음에 감사할 뿐, 불평은 없다.

지난 십여 년간의 연단의 시간이 무사히 지났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된다. 금년에는 또 어떤 인도하심이 계시지, 폭발적인 힘으로 이끄실지, 담금질을 더 하시며 고독의 시간 속에 더욱 강하게 날을 버리고 계실지. 그러나 어떠한 선택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감사하고 기대하며 가슴 두근거리는 수없이 주신 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또 믿는다.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비우게 하셨으니 이제 그 그릇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이광주 목사

내 백성을 위로하라(2)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의 지지를 받아 박헌영을 제치고 북한의 수장이 된 뒤,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거나 북한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수감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5~8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고, 최소 약 23만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중 5~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감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노역에 동원되며,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량을 배급받지 못합니다. 한 끼 식량으로 옥수수죽과 배추 세 줄기, 약간의 소금이 배급되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풀을 뜯어먹거나 뱀이나 벌레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영양실조가 시작되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참하게 굶어 죽습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간부들의 성 노리개가 되고,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임신부 배 위에 올라가 뛰는 등 강제 낙태를 시킵니다. 또한 각종 고문과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공개처형 시 자동 소총 사격을 했음에도 살아있을 경우, 군관이 가서 권총으로 다시 머리를 쏩니다. 어린아이라도 예외 없이 수감자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이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악질 정신 병자로 분류됩니다. 김씨 부자를 믿지 않

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만 따로 모아,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에 보내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빨은 하나도 없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해골과 같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하루 16시간 이상을 고열 노동 속에서 일하다 보니 척추가 녹아내려 등에 혹이 되어 있었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과 배가 마주 붙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채찍을 들고 다니며 언제든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살가죽에 튀어 딱지가 앉았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려서 그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다 모아놓고 발로 차고 때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 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교도관이 닥치는 대로 아무나 끌어내어 땅바닥에 엎어놓고 구둑발로 마구 짓밟았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들은 짓밟힐 때마다 몸을 뒤틀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주님..., 주님...”

급기야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용광로의 펄펄 끓는 쇳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들에게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숯덩이가 되

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옆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알리는 작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를 겪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하고 있는데,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속 북한 사람들의 공허한 눈빛이 홀로코스트 때 죽은 사람들의 눈빛과 똑같다며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답을 듣고서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앙상한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안아준다면..., 모든 원망과 아픔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해준다면..., 저는 감히 북한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며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했던 모든 기도는, 북한의 닫혀진 문을 열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살려내어 이스라엘로 보내는 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나타나시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1:17~19).

박영신

우리 하나님 멋쟁이

1992년 6월 23일, 인천에루살렘교회에서 이초석 목사님 집례로 제5기 목사 임직을 받았다. 광명, 관악, 안양, 안산 지역의 교구 목사님으로 일하게 하셨다.

안양 어느 병원에 전도사님, 집사님과 함께 심방을 갔었다. 여섯 살 되는 남자아이가 무릎에 물이 생겨 김스를 하고 있었다. 몇 번의 엑스레이 촬영을 한 의사의 말은 내일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수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고, 엄마의 말은 애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아이의 두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 마지막으로 촬영할 때 무릎에 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의사도 깜짝 놀라게 하시고, 수술하지 않고 퇴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왔다. 다음날 내가 기도한 대로 물이 다 사라지고, 의사도 놀라고, 아이는 바로 퇴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멋쟁이였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신 멋쟁이 나의 하나님이셨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아이가 자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이는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 했는데 아이의 눈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 사람이요 목사였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잠들게 하시고 종이 기도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하며 감격했었다.

성도들의 신앙은 이초석 목사님을 닮아서 적극적이었고 열정에 차 있었다. 심방을 서로 받으려고 새치기 심방까지 하는 통에 하루 열여덟 집을 심방한 적도 있었다. 심방 온다고 온 집안을 도배한 성도도 있지 않나, 점심 식사를 세 번 먹은 적도 있었고, 가는 집마다 커피에 다과로 배가 터질 것 같았고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참으로 성도들의 믿음은 순수했고 목사가 많이 먹고 가야 복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 전도사님들은 더 훌륭한 분들이었다. 내가 비록 목사였지만 전도사는 나보다 먼저 전도사가 된 분들이었다. 나는 전도사님들의 인품에 감격했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렸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라고!

이승호 목사

2023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신입생 모집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문제는 기회입니다

어느 날 한 유명배우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는 자신을 가리켜 ‘고통을 직면하고 이겨내는 타입’이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답을 찾은 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죠. 소금도 뿌려보고 불에도 태워보고 물에도 넣어 보고...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답이 나와요. 설령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 고민과 싸우기 전과 후의 저는 반드시 달라요.”

이 인터뷰를 보며 제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문제를 회피했던 경험도 있고, 이후 직면해 이겨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 맞서 이겨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식

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닥쳤을 때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하거나 도망칩니다. 혹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 문제에 직면하는 유형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문제와 직면해 싸워 이겨냅니다. 문제를 이겨낸 경험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려도 겁먹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총회장 목사님은 2023년,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자!’는 주제 아래 ‘야성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가 야성을 잃으면

작은 위협에도 겁을 먹고 물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맹수라도 야성을 잃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으면 문제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야성을 되찾아 문제에 맞설 때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경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잠 2:10)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넘겨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기회 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야성을 되찾아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됩시다.

전소희

